

#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01  
Jan. 2023  
Vol.11 No.01

통권 101호

- 2023 신년특별새벽예배
- 은퇴감사예배
- 제 1~3 권사회 월례회
- 교육부 / 영커플 소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새해 첫날 주일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겼다. (사진: Paul Yang)



## ‘복음의 사명’을 가슴깊이...

### ■ 제직세미나

일상으로 돌아온 듯 하나, 아직은 모든 것이 안정되지 않은 듯한 어설픈 느낌을 감추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표어 아래 가장 낮아진 자세로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주안예교회는 시카고 레익뷰 언약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강민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직세미나를 개최했다. 1월 20일 (금)에서 22일 (일)까지 3일 동안 총 네 번의 말씀을 전하신 강민수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는 로마서 1:1-7 말씀을 기초해 “그리스도의 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으며 사도 바울의 자신을 정의한 정체성과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동일한 것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의 중 임을 인식하며 헌신할 때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이었다. (2면에 계속)

| 오희경 기자 |



■ 노회 신년 하례회

## 40여 목회자 부부 초청 감사와 위로의 설잔치

2023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가 소속한 예장 미주 합동총회 서부 아메리카 노회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인사를 나누는 신년하례회가 지난 1월 8일 주안예교회에서 열렸다.

단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40여 명의 목사 부부들이 참석해 1부 예배는 부노회장인 최혁 목사의 사회로 김원락 노회장(멕시코시티 한인교회)이 ‘거룩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는 친교관으로 자리를 옮겨 답소를 나누며 교회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오찬을 들며 목회의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했다. 최혁 목사를 비롯해 시무, 피택장로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시중을 들며 섬김의 종으로의 마음으로 대접했다.

박찬경 전도사의 색소폰 연주와 정경



화 권사의 노래는 분위기 더해 몇차례 앵콜을 받기도...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정성을 담은 꾸러미를 손에 들려 드리고 새해에도 힘차게 사역하시도록 빛속에서 전송했다. | 조용대 기자 |

■ 세마장학회 성경암송

## 자녀들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 차곡차곡

올해 5년째를 맞이하는 주안예세마장학회가 올해도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경암송 실적으로 정하고 암송해야 할 구절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처음으로 성경암송 방식을 도입해 IC Kidz에서 대학생들까지 2년간 130여 명이 참가해 누적 380장의 성경을 암송하는 등 큰 호응과 성과를 거뒀다.

구약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주안예교회와 학부모들도 우리 2세 자녀들에게 귀한 성경말씀



을 가슴에 심어주는 데 역점을 두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금년 암송해야 할 성경은 다음과 같다.

시편46편, 시편119편 97-106, 로마서 12장(Extra Credit), 갈라디아서 6:1-10 절,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1장, 요한 1서 1장.

암송 일자는 2월부터 7월까지 매월 4번째 토요일과 주일로 학생들이 장학위원들 앞에서 암송해 평가받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제5기 세마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해 주실 위원들의 동참도 기다리고 있다. 암송 관련 문의와 암송 시간 예약은 교육부 담당 전도사에게 하면 된다.

| 조용대 기자 |

■ 제직세미나

〈1면서 계속〉 토요일 새벽에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1-11 말씀과 함께 “복음의 본질”에 대해 전하실 때 복음이란 기쁜소식을 뜻하는 것으로,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낌없이 전달 하셨으며, 새벽예배 후 권사회에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떡국과 샌드위치로 참가자 모두가 아침식사를 마

친 후에 연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로마서 1:8-12 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정리해 주셨는데 “격려” “기도” “헌신” “사랑” “섬김” “결손”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사뭇 진지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겠다. 아쉬움과 함께 맞이한 마지막 말씀은 주일예배 시간으로 이어졌으며 로마서 1:13-17 말씀으로 “

그리스도의 종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다. 결국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의 사명은 복음전파 곧 “전도”라는 명쾌한 결론과 함께 강민수 목사님의 부흥회는 막을 내렸지만 3일 동안 전하셨던 귀하신 말씀과 소중한 내용들은 우리 마음 속에 또 한 해를 살아낼 버팀목이 되어서 필요하게 느껴지는 순간마다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기를 기대한다.

■ 2023 신년특별새벽예배

## ‘은혜롭고 복된 말씀’ 새해를 힘차게 출발!

신년특별새벽예배가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육부와 ICY를 포함, 모든 성도를 초청하실 때 동시 통역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날 월요일은 공휴일이어서 부모님들은 자는 아이들을 업고, 안고, 손 잡고 와서 온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시리즈를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섭리의 방향, 섭리의 속도, 섭리의 협력, 섭리의 준비, 섭리의 재료, 섭리의 선함, 섭리의 수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매일 새벽 담임목사님의 말씀은 금년도 주안에교회의 표어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맥을 따라 갔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좇아 2023년을 채우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모든 성도는 밝은 소망으로 가득차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을 받고, 기도하였습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육



신의 양식으로 대접하는 주안에교회의 섬김 또한 대단했습니다. 마켓의 신선함이 그대로 옮겨진 야채와 과일들, 크로와상 샌드위치, 야구르트, 삶은 옥수수 and 계란, 머핀과 떡. 집에서도 못 챙겨 먹을 진수성찬의 아침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브니엘을 받고 계신 권사님께서는 온 성도들의 커피를 구색 맞춰 대접하느라 혼자서 부지런히 달리고 계셨습니다. 삼삼오오 음식을 들고 친교실에 모여 말씀을 상고하며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직장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날 어린이들을 단상으로 초대하시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리더를 향한 간절한 도고를 간구하며 축복의 기도로 채워진 2023년 신년특별 새벽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 한사람 한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실 일을 기대하며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기대로 2023년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갈 주안에교회 성도들의 설렘이 온 교회를 넘어 이웃으로 넘치는 기쁨을 보았습니다.

| 이예스터 기자 |



## 맡은 직분 끝내고 ‘은퇴 없는 새 사역’ 시작

■ 시무장로 · 권사 · 안수집사 은퇴예배

지난 10월 13일 금요일 영성예배 중에 주안에교회를 섬기던 직분자들의 은퇴식을 가졌다.

정도영 시무장로, 11명의 시무권사-고하나 권정숙 김상숙 나윤자 박경원 박영선 윤영란 이길라 이복희 조숙애 허명순 그리고 고희용 이형국 정명안 시무 안수집사들이 교회 규정에 따라 은퇴를 하였다.

길게는 32년간 또는 그보다 짧은 기

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실히 맡겨 주신 직분을 이행하던 귀한 분들의 영광스러운 은퇴를 교회와 전 교인들이 축하를 하였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예비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

특히 이번 은퇴하는 정도영 장로가 설교를 하였는데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순종’을 모토(Motto)삼아 주를 섬기자는 말씀과 장로님이 과거 투병 중에 체험한 간증을 통하여 예배

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이복희 권사가 은퇴자들을 대표하여 소감과 감사의 말씀을 하였다.

한편 최혁 담임목사께서는 그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은퇴자들의 수고와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계속 함께 할 것을 권면하였다.

| 나형철 기자 |



■ 봉사국 (김영기 장로 · 김영희 권사)

‘열려있는 주방, 들어오셔서 함께 섬겨요!’

새해가 되면서 교회의 각 사역국도 새로이 세워진 리더와 함께 새단장을 시작하는 사역국이 많아졌다. 그 중에서도 교인들의 교제의 원활유가 되어주는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봉사국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 한다.

2023 봉사국장으로서 섬기게 되신 김영기 장로님과 김영희 권사님은 오래전 MP채플에서도 봉사국을 섬기셨던 경험이 풍부하시면서도 뛰어난 솜씨와 아울러서 주위에 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시는 “본” 이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 입이 마르게 소개를 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다.

플러튼에 거주 하시면서도 섬김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국을 맡으셨으며,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오셔서 오후 늦도록 주일 식사 준비와 뒷정리를 묵묵히 하고 계신다.

매사에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함께 하시는 두 분은 섬김 자체를 기뻐하며 즐기시는 분들이다. 그래도 혹시나 바라는 점을 여쭈었더니, 두 채플이 합하였으나 아직은 벨리에 계신 교우들과 많은 친분이 없어서, 함께 일을 하고 싶지만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는 고충을 털어놓으셨다. 이왕이면 하나의 채플이 된 만큼 주방에서도 양쪽 채플 분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섬기는 봉사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많은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니 누구든 자원해서 본인이 받은 은혜만큼 헌신하며 함께 이끌어가는 봉사국을 꿈꾸신다는 소망을 살짝 비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참고로 봉사국에서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팀장이신 김영희 권사님 (562-536-9799) 께 문의 하시길 권해드리며 많은 분들의 헌신이 함께하는 활기찬 봉사국을 기대해 본다. | 오희경 기자 |

■ 주안에 HOPE (교도소 사역)

재소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밤 한 마리의 뱀이 먹이를 찾고 있었다. 뱀은 목수의 공방으로 들어갔다. 그 목수는 정리 정돈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바닥에는 그날 쓰던 연장이 널려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톱이었다. 뱀은 먹이를 찾아 공방을 돌아다니다가 톱 위로 올라갔고 톱날에 몸을 긁혔다. 즉시, 뱀은 톱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돌아서서 톱을 심하게 물었다. 뱀의 입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뱀을 매우 화나게 했다. 뱀은 톱이 온통 뱀의 피로 뒤덮일 때까지 계속 공격하였다.

자신의 상처로 인하여 죽어가면서 뱀은 분노하여 톱을 감싸서 온 힘을 다해 조이기로 결심했으나 이것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결과가 되었다. 짧은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캘리포니아의 교도소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이 뱀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화, 그리고 분노, 심지어는 체념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



중가주 Avinar 교도소 앞에서

또 다른 이야기. Marie Smith 라는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은 2008년 10월 21일에 사망하였다. 이 여인은 Alaska의 Cordoba 지역에 사는 Eyak Indian 언어를 구사하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유일한 순혈 에야크인이자 에야크어를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을 때의 느

낌을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게 왜 나인지, 그리고 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인지 나는 몰라요. 분명히 말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듣는 사람이 없으면 말하는 사람도 없게 된다. 말을 잃은 그에게는 세계가 암흑이 되고 침묵이 된다.

화와 분노는 우리 모두를 다치게 한다. 그로 인하여 사회에서 격리된 그들은 소통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만남을 계속하다 보면 화, 분노, 그리고 체념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서 기쁨과 희망을 그리고 어떤 때는 구원의 감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치유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교도소 사역이 몇몇의 사역이 아닌 모두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한다. 방문에 동참하실 분, 기도로 후원하실 분, 편지로 연락하실 분,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도와주실 분...

| 전호선 장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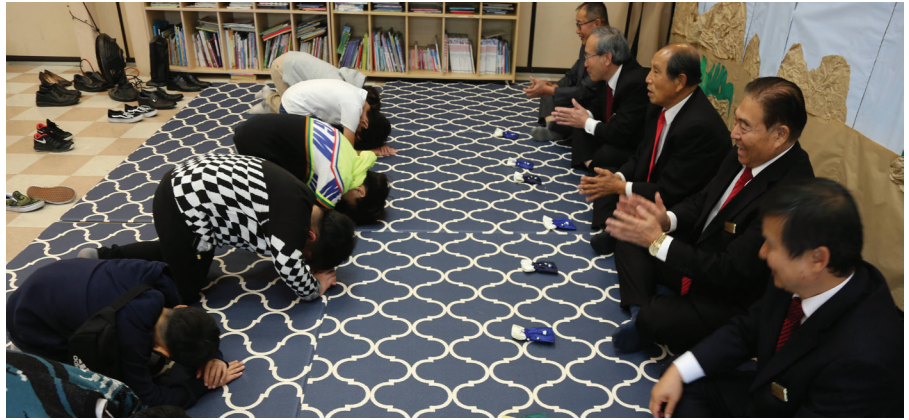


■ 교육부 신년에배

## 설날 어른 공경 예절 배우고 세뱃돈 받고

2023년 새해 첫날, IC KIDZ 예배는 IC NOW와 IC POWER의 연합예배로 드렸다. 예배 후에 교회의 가장 윗어른이신 원로장로님들과 시무장로님들께 '세배'를 하는 순서가 있어, 예배시간 중에 김민재 전도사는 성경의 '우상에 절하지 말라' 라는 말씀과 '세배'의 차이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집에서 연습해 온 아이들도 있었으나 생소한 아이들을 위해 '세배하는 법'도 같이 익혔다.

1층 예배실에 병풍처럼 펼쳐진 그림 앞에 앉아계신 장로님들께서는 손주, 손녀들을 바라보시듯 흐뭇해 하시고 아이들은 서툴지만 진지하게 세배를 했다. 장로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주머니에 말씀이 적혀있는 책갈피와



세뱃돈도 준비해 주셨다. 2023년도의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고, 교회의 어른들께 '세배' 하며 하나님 안에서 어른들을 공

경하고 소중한 전통과 뿌리를 바로 알고 행하는 멋진 주안예교회의 아이들로 성장해 가길 소망하며 기도해 본다. | 이성은 기자 |

■ 교육부 사역자 각오

### '주님이 맡긴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IC Now와 Power에서 2023년도 부장으로 섬기게 된 윤진영 집사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문화와 사정 또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일 처리 과정이 다른데 주안예교회에 나오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어 각오나 다짐 보다는 염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역자의 자녀로 태어난 저는 보통의 이민교회가 그렇듯이 여러 부서에서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많은 일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9년 전쯤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부터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출석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게 얼마나 낯설고 이상한 기분이었는지... 정말로 주일만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게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내 교만으로 했던 자랑으로 했던 주님의 교회에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알게 해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저희 아이들도 다 크고 초등부 또래의 친구들과 어떻게 교감하여야 될지 요즘 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시는지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고 마스크 때 문인지 얼굴과 이름도 빨리 외워지지도 않지만, 예전에 더 힘있고 빠릿빠릿하게 일할 때보다 한생명 한생명이 주님께 얼마나 귀하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무겁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더욱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섬김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부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에서 더욱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윤진영 집사

### '염려말라' 는 주님 음성에 순종의 발길

2022년을 마무리하고 23년에 앞서 나를 대로 몸뚱이 교회에 해야하는 섬김에 마음의 정리를 하고 특별 새벽예배를 앞둔 시점 전도사님의 주일학교 교사 콜링이 있었습니다. 쪼개서 시간을 쓰는 일상에서 계획에 없던 일로 부담을 가진 채 특새를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첫째 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며 먼저 열심히 살

았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 주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실 때, 나의 현재의 삶을 비추셨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종, 사환의 뜻이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방향, 속도 또한 주님께 맡기는 삶.. 머리로 알아도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타고난 기질, 성격, 환경들을 보며 특별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나한테 맡기지 않을래? 라는 음성과 함께, 알았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과의 줄다리기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국의 어머니" 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은 멕시코 선교 갈 때 주신 마음 아닌가요? 할 때.. "열국" 입을 다시 삼기시켰습니다. 아 네.. 어머니의 역할은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닌 생명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점점 반경을 넓혀 보여 주십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며 어린 영혼을 그대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섬김을 통해 저를 만지시고 우리 가정 또한 만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좁은 나의 시선에서 나를 건져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협력하여 선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어린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현주 집사



■ EM Home Invitation

## Connecting with Church Leaders

The Home Invitation is held once a month where a church member/elder volunteers their home for EM members to gather at and have a time of bonding and fellowship. We usually spend time chatting with fellow EM members and eating food prepared by various members. The Home Invitation host usually sets aside some time to share their personal faith walk with attendants. I had a very blessed time at Kang JSN's house. I was particularly encouraged by his testimony, where he shared about his personal faith walk. At one point, he shared about how he attended early morning prayer service at his previous church for two years straight, before he was even a believer. I was personally astounded to hear that he went to the dawn prayer



everyday, without fail, even though he did not receive any sort of sign from God. Kang JSN continued to go to dawn prayer even after not receiving any sort of blessing, until God eventually imparted upon his heart that he was a sinner. I was very inspired by Kang JSN's testi-

mony, as I personally find it difficult to pursue something with such consistency and dedication, especially over such a long period of time. Overall, I had a very enjoyable time of food and fellowship, and look forward to the next house visitation.  
Caleb Yun

■ EM Post-service Activity

## Picasso Descendants

On Sunday of January 15, EM held its "Picasso Moment" post-service activity. Participants were given instruction on oil painting and had the chance to make their own creations of abstract art. Leading the activity was longtime ICCC member and art student Seobin Yun. During the activity, Seobin explained different concepts to apply in abstract painting along with various tricks and methods to working with oil paint. Participants were then given a choice of various landscape photos, from snow-capped mountains to rolling sand dunes to lush seaside cliffs, applying their newfound skills to replication. After trial and error, participants all ended up creating unique final products, each exhibiting their own individual traits, quirks, and id-



iosyncrasies. As always, a special thanks to the leadership of EM for always preparing fun and creative opportunities of fellowship for its members. Another special thanks to Seobin Yun for leading this activity as well as her continued service and dedication to ICCC. "I think it was an

interesting opportunity for me to lead a group of people using my direct talent of art," says Seobin. "I served in different ways, whether it was in worship or praise, but I never used art to provide a time of fellowship."

Chris Kim

■ IC Kidz Staff

It hasn't been long since I started being a staff or teacher at IC Kidz yet; however, I believe that I am blessed with this opportunity to work with the kids. I hope during my time as a staff/teacher; I will be able to help the kids understand the Church and God more as well. Of course, I am still lack-

ing in many ways. However, I pray that during this time, God will use me since he has chosen me to serve in his place. I honestly didn't have a reason to particularly join IC Kidz as a staff/teacher, but I believe that everything is in God's plan, and the reason why I joined IC Kidz will be revealed to me soon. So I pray as I

help IC Kidz, whatever hardships, struggles I may go against during this time, I will be able to do my best with God's love, power, and passion for teaching these kids the best I can. Thank you!



Alice Lee



■ 영커플 1목장 신년모임

## 받은 은혜, 진솔한 소통... 시간 가는 줄 몰라요

1월 21일 모처럼 화창했던 토요일 점심, 만면에 미소를 띤 목원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한 가정씩 목자님(최형선 집사/최정화 권사) 댁에 도착했습니다.

유난히 어린 아이들이 많은 우리 목장은 모이기만 하면 시끌벅적합니다. 목자님의 정성스럽고 사랑 담긴 음식에 감탄을 하며 아이들 양육과 집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두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마시멜로는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욱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찬송 형제가 준비한 찬양 시간을 통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난 주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진솔한 삶의 고백들을 나누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감사가 있었습니다. 수진 자매는 자발적으로 게임과 선물을 준비하



여 더욱 풍성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헌신하며 목원들을 섬겨 주시는 목자님 내외 분의 예수님 님

은 사랑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한 목장 안에서 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박성은 집사 |

■ 새 목자 임명

### ‘빛진 자의 모습으로 목원들을 섬기겠습니다’



이카일 피택안수집사, 이태영 집사 (15목장)

저희가 주안에교회에 오게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추억과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 주안에교회는 안식처였고, 상담소였고, 응답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 또한 믿음 속에서 자라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치

빛쟁이와 같은 모습으로 늘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빛진 자의 모습이 되어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귀한 15목장을 맡겨주신 주님께 순종하며 배워가는 마음으로 감사히 섬기겠습니다. 우린 다 부족하지만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같이 성장하는 곳이 목장이라고 믿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진다는 말처럼, 우리 목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되어 함께할 수 있길 기도 합니다.



장주성, 김지연 집사 (영커플 2목장)

작년 한 해 작은 목자로 섬기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정진했는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에 정신이 없던 저희 부부 가운데 목원들과 주일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 생각지 못한 목자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또 한번의 부담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지만, 작년 한 해 돌봐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부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또 한번 저희 가정과 2목장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정성훈, 김지희 집사 (영커플 3목장)

목자 임명식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기시고 귀한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대감 보다 걱정이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부부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라고 맡기신 자리이기에 잘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헌신할 것을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길 기도하며,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 권사회 소식



‘매주 기도모임, 토요일 아침은 즐거워’

1월 28일 토요일 새벽예배 후에 2023년도를 봉사할 새회 장단이 출범하여 첫번째 제2권사회 월례회 모임이 있었다. 회장에는 김규실 권사, 부회장 장정보 권사, 총무 오병순 권사, 서기 오희경 권사, 회계 공수옥 권사, 오락부장에는 이경희 권사가 수고 하기로 하였다. 27명의 권사들이 모여 새롭게 결정된 사항은 다음주부터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 권사회 기도 모임이 있다고 하며 맛있는 커피와 샌드위치 제공 된다고 하니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한다.

또한 재미있는 모임을 만들기 위하여 오락부장까지 세운 권사회의 포부를 뒷바침 하기 위하여 모든 권사님들의 매주 기도모임과 매달 월례회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임용자 기자 |

‘OC-밸리 젊은 권사들이 하나되었어요’

1월 21일 제직세미나가 아침 집회를 바쁘게 끝내자마자 제 3권사회는 101호실에서 모였습니다.

2023년 신년에 주안예교회 목회부 방침에 따라 밸리3권 사회와 OC권사회가 통합되어 주안에3권사회로 명명하기로 하고 출발하는 첫 모임이 새가족실에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단호박죽과 간식으로 모든 권사들을 섬겨 주셨고 서로 간단한 자기 소개와 현재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지도 알려주는 시간이 서로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 전 주에 줌으로 월례회를 했지만 이렇게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서로를 더 깊이 알게 하였고 더욱 친근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이에스터 기자 |

‘어려움 돌보는데 앞장’

제1권사회장 김소명

내가 전에 가끔 어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집안이 잘 되려면 그 집의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맞는 말씀이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형제 자매들과도 우애하고 늘 훈훈하고 따스한 바람이 감도는 집안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집안이라 아니할 수 없지 않은가. 그만큼 여성들의 위치가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인 지체로서 권사는 그 교회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약한 구석을 살피며 어려움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직분으로 그러한 권사들이 많을 때 분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교회의 어른으로, 때로는 어머니로 그 소명을 다하는 권사들이 함께 하는 권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섬길 것을 다짐해 본다.



‘그리스도의 향기되어’

제3권사회 김옥희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잘 해보라” 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OC권사회가 아닌 주안에 3권사회로 새롭게 출발하며 마음에 부담은 있지만... 그동안 부족한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혜와 건강과 힘과 능력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주안에 3권사회가 결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교회와 가정과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권사님들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전도의 열매를’

제2권사회장 김규실

2023년 한 해를 맞이하며 가장 긴장이 되는 해인 것을 고백합니다.

권사회 회장이라는 직함은 나에게 너무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앞에 서는 것 보다는 뒤에서 돕고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더 적합하고 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권사회 회장은 부담이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맨붕 상태에 빠져있을 때 특별 새벽집회를 통해 시간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격려와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결손의 삶으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권사회가 되도록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 은퇴장로 · 권사 · 안수집사 소감

## 인생의 자투리 시간을 행함 있는 믿음 힘쓸터

### 이복희 권사

저는 15년 전 권사의 직분과 역할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시무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권사는 목사님을 따라 심방 다니며 건강이 안 좋은 교우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 직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권사란 직분이 부담스럽고, 교회의 어머니 같은 역할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돌보는 것이 내 임무는 아닌 것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목회부 전도사님이 “다음 주 금요일예배 때에 시무권사 은퇴식이 있고 이복희 권사님도 은퇴하게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가슴 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권사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 본 적도 없는데 벌써 은퇴라니 제 마음은 허전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시무권사 은퇴를 통하여 나의 젊고 건강했던 시절을 허송세월 했고 남은 인생은 자투리 시간을 살겠지만 앞으로는 매일매일 시간을 아끼고 점검하며 우리 주님 뵙는 날 기뻐하며 칭찬받도록 살아야 되겠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 불가능한 일 이뤄주신 하나님 은혜

### 정도영 장로

주안에교회가 노스리지 지역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날들이 계속되면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니, 교회는 재정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졌고, Payment 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더 이상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기도이지 눈을 감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라며 계속하여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건축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확신은 있는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위해 늘 기도로 도와시는 한 권사님이 아주 좋으신 목사님이 있다고 하시며 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기도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2월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최혁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몇몇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1년 전 장로가 된 후 저의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 하였습니다. 제 경험만 의지하며 목회자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3번이나 죽을 가운데서 만났던 신실하신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져 지난 9년 동안 말씀으로 제 신앙생활을 재정리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무장로를 은퇴를 하면서 뒤돌아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10주년을 향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일치되도록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가정, 그리고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 주 안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 동료들께 감사



고용흠 시무안수집사 시무 안수집사 직분을 받은 후 지난 20여년간 하나님께 충성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주의 종들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

홀로는 감당키 어려운 직분을 수행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억하며 섬기고자 합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동료 안수집사님들과 여러 교우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 크나큰 축복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제가 안수집사 회장으로

로 활동할 당시 여러 임원들과 회원들이 열성을 다해 협조해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신 분들의 모습과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오래 기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무 안수집사 직분은 은퇴하더라도 나를 부르고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의 몸 된 ‘주안에교회’를 평생토록 열심히 섬기고자 합니다.



■ 교육부서 봉사자 감사회



'교사들 사랑과 헌신에 박수를'

2023년 밝은 새해를 맞이한 주안예교회에서는 1월 18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다해 어린 심령들을 섬기시는 귀한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교사 감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교육부 IC KIDZ 교사 전체 뿐만 아니라, 요계벧, 한글학교 교사, IAM 중창단 지휘자까지, 주안예교회에서 키즈 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초청한 자리였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공수한 싱싱한 레몬으로 한껏 맛을 낸 테이블에 양상추 샐러드, 따뜻한 대게계와 고급 랍스터까지 새가족부의 극진하고 세심한 섬김 속에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섬기시느라 서로 마주하며 얘기 한 번 나누기 어려웠던 모든 선생님들이 반갑게 마주앉아 즐겁고 감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시며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아이들 마음에 새겨져서 천하보다 귀한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 격려하셨습니다.

그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그 섬김과 노고를 세밀히 알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손길을 힘입어 모든 교육부 선생님들이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사랑스런 아이들의 마음에 심기위 나갈줄 믿습니다.

| 이현영 집사 |

■ 새가족 소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미명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다는 말씀에 그동안 토요일 새벽예배만 참석한 게 맘에 항상 걸려 있던 중, 집 옆에 주안



김현영 집사, 김자넷 권사

예교회는 저로 하여금 매일매일 새벽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초부터 시작된 예배로 저희 부부가 스스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번도 최혁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었기에 처음으로 듣는 목사님 설교는 우리 부부의 심장을 설레게 했습니다. 새신자 환영모임은 어느 교회보다 정성스러운 음식과 데코레이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직접 목사님의 서빙과 장로님의 따스한 미소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혁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신앙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2023년 특새를 통해 올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라는 표어에 맞게끔 살아갈 것입니다. 2022년 주안예교회에 출석한 것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는 남편의 칭찬과 2023년 주안예교회의 작은 반딧불이 되어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 주안예한글학교 봄학기 개학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한글 사랑”을 표어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늘 사랑과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함께 배우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주안예한글학교가 1월 22일 설레는 마음으로 봄학기를 개강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한글학교를 섬기고 도와준 TA선생님들이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글학교에서는 앞으로 TA들의 섬김이 더욱 온전하고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섬김을 위한 서약과 트레이닝 및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안예한글학교는 한국인의 자긍심과 바른 역사를 이해하는 믿음의 한인 2세들로 주님의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 이성은 기자 |

믿음도 튼튼!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



창립 10주년 교육관 건축 동참 골프대회

■ 주안에할배 골프회

주안에교회 골프회 “주안에 할배들” 주관으로 주안에교회 10주년 기념 및 교육관 건축 기금모금에 동참하는 뜻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연령에 제한없이, 골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셔서 교제의 폭을 넓혀가게 하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한다.

신청은 본당 앞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주중에는 이미란 전도사께 하시면 된다.

- ▶ 일시: 3월 25일 (토) 오전 10시
  - ▶ 장소: Knollwood Country Club (1240 Balboa Bl, Granada Hills)
  - ▶ 참가비: 성인 \$150
  - ▶ 신청마감: 2월 26일 (주일)
  - ▶ 연락처: 이규환 장로 (831) 277-2402, 박웅기 집사(253) 334-3976
- 한편, 평소 정기라운딩은 월, 목에 Knollwood Country Club 에서 있다.



매주일 저녁 전용구장서 함께 뽀시다!

■ 주안에축구팀

오랜 기다림 끝에 주안에교회 축구단이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주안에축구팀 전용구장이 생겼다는 소식은 축구를 좋아하는 교우들에게는 환호할 만한 낭보가 아닐 수 없겠다.

1월 29일(주일) 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전용구장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경기를 한다고 하니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한다.

준비물은 유니폼(흰색 상의, 검정색 바지) 축구화, 정강이 보호대 등이며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팀장이신 정현철 (Branden Jung) 집사님께 연락 (818) 426-3699) 하시면 된다.

주안에축구팀 전용구장은 Whitsett



Sports Field, North Hollywood, CA 91605 에 위치해 있으며, 특별히 넓은 연령층을 아우르는 팀으로 다들어 가길 원하는만큼 나이 보다는 열정을 선호한다는 후문이 있다.

■ 주안에야구팀

- ▶ 매주 토요일 오전, Azusa Memorial Park (320 N. Orange Ave) ▶ 연락처: 이원근 안수집사 (213) 703-0777

"영커플 2, 3목장 Happy New Year!"





■ 음악산책/ 새해 결심

## 음악도 신앙도 치열한 노력과 인내의 산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실현을 위해 각오를 다진다. 그러나 다짐은 오래 가지 못하고, 늘어가는 변명과 함께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이다. 연초에 세운 계획을 연말까지 실행하는 사람의 비율이 고작 8%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준다.

리스트의 라이벌로 불릴 정도로 탁월한 연주 실력을 자랑했던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안톤 루빈시타인(1829~1894)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눈치를 채고, 사흘째 연습을 안 하면 수많은 청중이 알아차린다.”라는 말로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음악은 마치 천사가 불러주는 음악을 받아 적은 듯하다’라는 찬사를 받는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1756~1791)는 “사람들은 내가 쉽게 작품을 쓴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내 작품은 치열한 연구의 산물이다. 선배들의 작품 가운데 내가 분석하지 않은 곡은 없다.”라고 일갈했다.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파블로 데 사라사테(1844~1908)는 “37년간 빠지지 않고 하루에 14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습해 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천재라고 부른다.”라며 연주가로서의 끝없는 노력과 인내를 역설했다.

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나 쉽게 업적을 이룬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과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찬란한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작심삼일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쉽고



구체적이며 작은 계획부터 세우가는 것을 조언한다. 작은 목표들을 자주 이루고 성취감을 맛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고 점차 더 큰 성취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시련은, 수많은 기도와 결심들을 흔들리게 만든다.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넘어진 그 자리를 디딤돌 삼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힘들지만 기꺼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계획하신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작은 것들에서 시작한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뢰며 꾸준히 주님과 교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 어느새 훌쩍 자라난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해낼 때에,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밝히는 믿음의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 황성남 기자 |

'선한 능력으로' 임마누엘 성가대 신년 예배 찬양



## NEWSLETTER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 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더,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